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24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5월 12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이래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타령할건가

자본의 이윤 앞에 모든 것이 뒷전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이야기하고 국가의 재난시스템을 이야기한다. 많은 이들이 안전 규제를 강화해야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꿔야 한다. 그런데 규제가 강화되고 재난대응 시스템이 갖춰져도 이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이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자본은 언제나 이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가는 자본에게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데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노조파괴 모두 자본이 만든 필연적인 참사

자본은 이윤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적절한 투자를 한다. 그런데 자본에게 노동자, 승객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비용은 줄여야할 쓸데없는 '비용' 이었다. 정부기관을 상대로한 접대비는 이윤을 위한 '투자' 였다. 이윤 추구가 최대의 목적인 자본에게 이런 습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외쳐댔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핏대를 세웠다. 그나마 규제가 있어도 자본과 결탁한 정부기관들은 편의를 봐주고 불법도 눈감아주기에 바빴다. 그러니 이런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노조파괴를 보면서 이미 이런 자본과 정권의 결탁을 잘 알고 있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조파괴라는 범죄를 저질러도 버젓이 공장을 활보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자본과 결탁한 정권이 뒤를 봐주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벌어졌다. 해운사는 이윤만을 위해 모든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고 정부는 모두 눈감았다. 그렇게 참사가 일어났다.

잊지 맙시다! 행동합시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참사는 또 반복된다. 자본과 결탁한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지 못하면 참사는 또 반복된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잊지 않는 방법은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이 사회를 확실히 바꿔놓는 것이다. 이제는 추모, 분노를 넘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5월 17일 서울 청계천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아이들을 살려내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5월 17일(토) 서울 청계광장에 모입시다!

고공농성 200일,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한 10시간

유성영동지회 이정훈 지회장의 고공농성이 200일을 훌쩍 넘겼다. 작년 가을 시작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봄을 맞이했다. 이제 곧 지독한 무더위를 준비해야한다. 농성이 길어지고 있지만 이정훈 지회장도, 조합원들도 지칠줄 모른다.



지난 2일 전국에서 많은 동지들이 옥천 철탑농성장에 모였다. 농성 200일을 넘긴 이정훈 지회장과 함께 하기 위해서다. 노조를 설립하고 1년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서대전분회 동지들이 가장 먼저 철탑을 찾았다. 삼성자본과 유성자본의 탄압 속에서도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동병상련의 노동자들이 함께 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충북지역 희망버스 기획단을 함께 했던 동지들이 대형 올빼미 그림 현수막과 희망 모종심기를 준비했다. 예상보다 훨씬 예쁘게 완성된 대형 올빼미 현수막은 철탑에 걸렸다. 오후 7시에는 문화제가 시작됐다. 다양한 영상과 문화공연으로 꾸며진 문화제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노조파괴 사업주를 직접 민중의 힘으로 심판하는 의미의 민중 희망법정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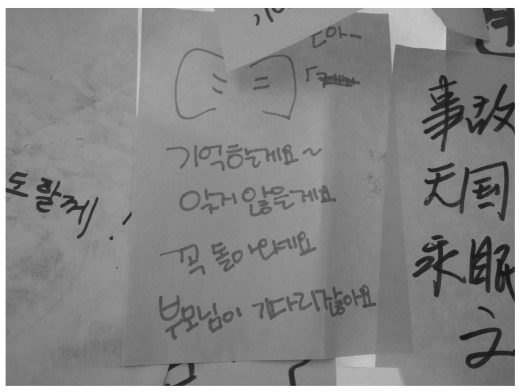
한편, 이 날 오전 유성영동지회 조합원들은 옥천경찰서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철탑 농성 중인 이정훈 지회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며 수차례 농성장을 찾아오는 만행을 저지른 옥천경찰서를 규탄했다.

대전도, 충북도 세월호 추모 행동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행동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전과 충북지역도 시민분향소를 운영하고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절대 잊지말고 행동하자는 제안이 많았다. 그런 뜻이 모아져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인 시민분향소가 만들어졌고,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촛불문화제도 열렸다. 대전과 충북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곪은 상처를 도려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본의 이윤만을 위해 생명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사회는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국가적 재난에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국민들을 속여가며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대통령은 필요없다. 이제 우리의 직접 행동이 필요하다.





※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분향소 및 촛불문화제

대전 : 대전역 시민분향소, 매주 (목) 19시, (토) 18시 촛불문화제

충북 : 청주 상당공원 시민분향소, 매주 (금) 19시 촛불문화제

"진기승을 살려 내라"
전주 신성여객 버스기사들 승무거부

부당해고와 회사측의 회유에 괴로워하다 자살을 시도한 전주 신성여객 해고자 진기승 동지가 뇌사상태에 빠진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 신성여객지회가 회사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6일부터 승무거부에 돌입했다.

신성여객은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버스기사 210여명 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98명,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은 110여명이다. 나머지는 국민노총 소속이다. 이날 승무거부에는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들도 2시간 가량 동참했다. 이날 신성여객 버스 96대 중 61대가 출차하고, 35대는 출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가 자살을 시도한 다음날인 이달 1일부터 신성여객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지회는 회사측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농성과 승무거부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진기승 동지 쾌유 기원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 대책위원회'는 8일부터는 매일 전주시청부터 전주상공회의소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한다.

한편 한명자 대표이사는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누가 죽으라고 했냐"는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_iswcool@naver.com



<5.2 유성 고공농성 200일 공동행동>



<5.10 세월호 추모 국민 촛불행동>



<5.10 세월호 추모 국민 촛불행동>



<5.10 세월호 추모 국민 촛불행동>